

# 南北韓 經濟學의 比較와 統合 展望\*

朴 淳 成\*\*

- I. 비교와 통합 전망의 필요성과 가능성
- II. 남북한 경제학의 분화과정
- III. 비교 1 : 경제학의 정의
- IV. 비교 2 : 경제학의 체계
- V. 비교 3 : 경제학의 동향
- VI. 남북한 경제학의 통합 전망과 과제

## I. 비교와 통합 전망의 필요성과 가능성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경제학은 현실의 제약에 민감하다. 현실이 사회경제체제의 작동원리 차원에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남북한의 경우, 경제현실을 설명하고 예측하며 경제정책을 제시하는 기초가 되는 남북한 각각의 경제학은 기본 원리에서뿐만 아니라 연구분야와 연구목표에서도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상이함은 두 경제학 체계간의 비교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며, 통합에 대한 전망이 전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게 만든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학을 비교하고 두 체계간의 통합을 전망하는 이유, 그리고 비교와 통합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이 우선 요구된다.

\*본 연구는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비교와 통합의 필요성을 현실적·실용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 남북한 경제관계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지 않을 수 없다. 1980년대 중반의 실험적 단계를 지나 199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은 이제 단순한 물자교류의 단계를 넘어, 투자협력의 단계에 이르렀다.<sup>1)</sup> 남북한 경제관계의 발전은 대립하는 경제체제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행위에서의 부조화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한 경제체제와 경제행위의 기본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 남북한 경제학 각각에 대한 상호이해를 요구한다. 특히 위탁가공교역, 합영사업, 경수로건설지원사업 등과 같은 남북한간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인들의 협상이나 기술자·노동자들의 공동작업에서 나타나는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행위자에게 체화되어 경제행위나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남북한 각각의 경제원리에 대한 상호이해가 필요하다. 남북한 경제학의 비교는 남북한 경제행위자들의 행위원리를 일관성을 갖고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경제관계를 포함한 남북관계 전반의 발전에 덧붙여 북한 경제체제를 개방하려는 북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경제의 통합가능성을 역사적 시야 안으로 끌어오고 있다. 현재 남북한 경제체제의 차이를 고려할 때 남북한 경제의 통합이나 통일경제의 형성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느슨한 형태의 민족경제공동체가 형성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남북한 경제관계가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사이의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발전하고 또한 경제공동체가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물적 기반으로

1) 남북한 경제관계의 발달과정에 대해서는 박순성(1995a) 참조.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현황에 대해서는 매월 발간되는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을 참조할 것. 10여년 간의 발달과정에 대한 주요한 통계자료는 통일부(1998) 참조.

작용할 것이라면, 남북한 양 체제의 증장기 경제발전과 경제체제 변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인 경제학 이론체계를 비교하는 작업은 결코 성급한 일이 아니다. 이는 남북한 경제발전과 사회경제제도 형성에서 국가의 정책이 갖는 비중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으며 또한 경제학 이론체계가 경제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sup>2)</sup>

한편 남북한 경제학의 비교와 통합 전망의 필요성은 통일 이후라는 예상되는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사고실험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가 완전통합의 과정을 밟을 때, 새로운 경제체제의 형성과 경제행위자의 행위원리 체득에 현재의 남북한 경제학은 필연적으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통일경제의 미래상에 미칠 남북한 경제학의 영향은 말할 것도 없으며, 소극적 차원에서도 현재의 남북한 경제학은 새로이 형성될 경제체제에 경제행위자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부정적으로 때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극단적으로 대립해 있는 현재의 남북한 경제학에 대한 비교를 통한 상호이해는 통일 이후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을 미리 예측하고 해소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sup>3)</sup>

남북한 경제학의 비교가 남북한 경제관계의 발전과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면, 이러한 비교의 필요성은 당연히 경제학의 통합에 대한 전망도 정당화시켜 줄 것이다. 하지만 필요성과 정당성이 비교와 통합의 가능성까지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비교와 통합 전망에 덧붙여,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sup>4)</sup>

2) 김대환(1995), 박순성(1995b) 참조.

3) 경제학의 발달사 자체가 다양한 분파의 존재에 기초해 있다는, 흔히 간과하기 쉬운 사실에 대한 언급은 여기에서 생략하였다.

4)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실질적인 비교와 통합 전망에 앞선 가능성의 이론적 검토가 비교와 통합 전망의 방향조차도 결정지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러나 비교와 통합 전망에 대한 실질적 연구와 가능성에 대한 이론

체제대립에서 기인하는 남북한 경제학의 차이는 자유자본주의체제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시장경제이론과 명령형 사회주의체제의 근거와 원리를 제공하는 계획경제이론의 대립으로 단순화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대립관계는 ‘근대사회’의 패러다임들 간에 존재하는 내부갈등의 차원에서는 매우 분명하며, 당연히 적대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적대관계는 근대사회의 패러다임 자체를 객관화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침투적인 관계로 드러난다.

첫째, 남북한은 식민지배를 벗어난 후진사회로서, 기본적으로 ‘근대화’를 지상목표로 하는 근대국민국가 건설이라는 역사적 비전을 공유한 상태에서, 근대화의 전략 차원에서만 대립을 보여주었다.<sup>5)</sup> 비전의 공유와 전략의 대립은 남북한 경제학이 철저히 대립하면서도 출발점에서는 인식의 동시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따라서 최소한의 비교의 조건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구나 남북한이 분단체제라는 구조적 제약 하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전략의 대립은 종종 상호학습을 통한 전략의 동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이 점은 경제성장을 위한 남한의 전략이 결코 순수한 시장중심주의가 아니었으며 또한 중공업중심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되기도 한다.<sup>6)</sup>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비교의 가능성, 이질성과 동질성의 공존을 확인

---

적 검토 양자간의 상호작용(균형과 견제)을 인정한다면, 우려는 다소 불식될 수 있다.

5) 이병천·박순성(1999) 참조.

6) 심지어 극단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근대경제체제의 두 형태인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는 근대사회의 세 가지 핵심적 본성 중 간주관성(interindividualité)과 중심성(centricité)을 각각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점(나머지 하나는 연합성(associativité)이다)에서, 비교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시장경제(그리고 자본주의 경제학)와 계획경제(그리고 사회주의 정치경제학)는 근대사회(그리고 근대사회의 경제학)의 두 현상형태로서 비교될 수 있는 것이다. Bidet(1990) 참조.

하는 작업의 가능성이 도출된다.

둘째, 남북한 사회의 동시대성은 근대국민국가의 건설이라는 측면을 뛰어넘어, '근대성'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근대성은 산업화로 요약되는 경제의 근대화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근대화를 개인과 사회의 포괄적 변화(계몽과 자유로 요약되는 자아의 각성, 정치의 민주화, 대중문화의 형성 등)로 파악하면서 경제중심의 근대화가 지닌 한계를 드러내 보여준다. 사유와 행위의 주체로서 개인이 사회질서의 전면에 나타날 때, 경제의 근대화는 인간 주체의 행위결과로서 인식된다. 그런데 경제행위의 주체로서 인간(때로는 개인, 때로는 공동체)보다 행위결과(경제적 효율성 또는 경제성장)가 강조되면서, 역설적으로 하나의 극단적 사고체계가 등장한다. 경제주의라 흔히 일컬어지는 이 사고체계는 경제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승격시키면서, 경제가 한편으로는 사회를 지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을 정복하는 것을 근대성의 본질로 파악한다. 이러한 경제주의는 근대국민국가 건설이라는 근대화 전략을 절대화하면서, 가치들간의 긴장을 통해 유지되는 근대성의 건강성을 행위주체와 행위결과와의 관계역전을 통해 위협한다. 근대화 전략을 일차적인 국가목표로 설정한 남북한 사회는 당연히 이러한 근대성의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남북한 경제학은 경제주의적 사고가 경제이론체계에 반영되는 두 유형이라는 점에서 비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우선 남북한 경제학이 분화되어 각각의 체계를 형성하고 대립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본다(2장). 다음으로 남북한의 경제학을 정의(3장), 체계(4장), 동향(5장)이라는 세 측면에서 비교한다. 끝으로 남북한 경제학이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과 통합을 위한 과제를 살펴볼 것이다(6장).

## II. 남북한 경제학의 분화과정

남북한 경제학의 분화 과정에 대한 검토는 비교와 통합 전망을 위한 출발점이다. 분화되기 이전의 한국의 경제학은 비교의 대상이 되는 남북한 경제학의 원형을 보여주며, 또한 분화의 역사는 통합의 역사가 겪을 난관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분화 이전의 한국 경제학이 결코 통합 이후의 한국 경제학일 수는 없으며, 폭력적 분화 과정이 통합 과정의 예상되는 강제적 상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분화 과정은 이러한 전제 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다른 모든 학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경제학의 분화는 분단이라는 정치사회적 사건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았다. 미·소의 진영대립, 좌우를 포함한 다양한 정치집단들간의 권력투쟁, 이념·계급차원의 사회갈등으로 일어난 한반도 분단은 두 번의 건국과 3년의 전쟁을 거치면서 고착화되었다. 이러한 분단 과정에서 경제학자들은 정치사회적 조건에 따라 자신의 진영을 찾아 정착하도록 강요받았다.<sup>7)</sup> 결국 이갈

7) 남한 사회에서 사회주의적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축출되는 과정은 분단 한국의 사회적 비통합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사회·경제에 대한 이념상의 질곡은 사회과학 전반 및 경제학적 시야를 속박케 된다. 이념상으로 사회주의내지 공산주의를 추구하던 정치·사회세력들이 불법화되고 명목상이나 실질상으로 이와같은 이념을 내세우던 사회과학자내지 경제학자들은 6·25를 전후로 입북, 남북 혹은 변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이런 현상은 이미 언급된 대로 한국사회 및 경제학계에서 사회주의적 성향이 세척되는 전반적인 경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월북한 경우 '북한의 체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남한에서 수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남한이 싫어서'라고 고백한 경우가 많아서 당시 남한 정부 및 사회전체가 이념에 대해 불합리한 경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경제학회(1991), p. 2. 북한 사회의 경직성은 월북한 윤행중의 숙청에서, 그리고 아래에서 살

은 기초적 생존조건과 이념적 제약에 따른 경제학자들의 사회공간상의 재배치는 남북한 경제학 분화의 기본 조건이 되었다.

분단이라는 정치사회적 조건에 따른 경제학의 분화는 경제학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곧 경제학이 현대사회의 기본 특징을 좌우하는 사회경제체계의 이념적 규정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서울을 중심으로 볼 때, 해방후 경제학계는 사회주의 경제학과 비사회주의 경제학이라는 두 흐름으로 대별될 정도로 이미 대립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대립 속에서 경제학의 여러 분과 중 맑스주의, 역사학과, 고전학과의 경제학이 한국 경제학계를 주도하고 있었으며, 한계이론에 기초한 신고전학과 현대경제학은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었다.<sup>8)</sup>

대립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반도의 남쪽에서 동일한 활동공간을 유지하던 경제학계는 국립서울대학교 설치 반대운동(1946.8), 공산주의 활동의 공식적 금지(1948.8), 한국전쟁(1950.6-1953.7)을 거치면서, 지역적·실질적으로 완전히 양분되고 말았다.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930-1945년 국내 4개 전문대학(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경성제국대학 예과, 숭실전문학교)에서 경제학을 담당하던 교수 17인 중 1950년 대 이후에도 경제학자로서 활동한 인물은 11인 정도이며, 그 중 4인이 월북하였다.<sup>9)</sup> 더욱이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대학의 경우 경제학 교

펴볼 1950년대 후반의 북한 경제학의 주체화 과정에서 좀더 비극적으로 드러난다. 성낙선·이상호(1999), 서동만(1998), 김성보(1998) 참조.

8) 이기준(1983), pp. 200-204; Choi(1956) 참조. 예외적으로 케인즈의 경제이론은 월북한 윤행중을 통하여 소개되고 있었다.

9) 이기준(1983, pp. 191-2)에 따르면, 1930-1945년 경제학 담당교수는 고승제, 김광진, 김효록, 노동규, 박극채, 박효삼, 백남운, 신태환, 육지수, 윤행중, 이관구, 이순탁, 이학복, 이훈구, 정래길, 최순주, 홍성하 등이다. 이 중 김광진, 박극채, 백남운, 윤행중은 월북하였으며, 고승제, 김효록, 신태환, 육지수, 이순탁, 이훈구, 홍성하는 남한에서 활동을 계속하였다. 남한에 남은 경제학자

수 6인 중 4인이 월북하였다.<sup>10)</sup>

경제학자들의 지역적 재배치는 이후 남북한 경제학의 분화에서 시작에 불과하였다. 남북한 경제학의 분화는 이후 남북한 각 지역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격화된다. 남한의 경우, 새로운 경제학의 형성은 이념적 제약 하에서 경제학자들의 학문적 출신지를 바탕으로, 20세기 전반과 중반의 현대경제학의 조류가 남한에 들어오면서 이루어졌다.

분단 이후 남한 경제학자들의 학문적 출신지의 변화는 해방전 경제학자들의 학문적 출신지와 비교할 때 단적으로 드러난다. <표 1>과 <표 2>를 통해 출신지를 비교하면, 남한의 주요 경제학자들 중 대부분은 해방 이전과 직후에는 주로 일본에서 공부하였으나, 점차 서구(특히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학자들의 수가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표 2>에 나타난 경향을 보면, 미국학위 취득자는 비율과 절대숫자에서 1921년 이후 출생자들부터 증가하고 있다.<sup>11)</sup>

---

중, 육지수, 이순탁, 이훈구, 홍성하의 경우 학계활동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기준(1980), 김성보(1998), 방기중(1992), 한국경제학회(1963, 1964) 참조. 홍성하와 이순탁은 해방 후 정치활동에 참가하였다(「한국국민당」 발기인). 임영태(1985), p. 411. 이훈구는 일제 하에서 사학을 운영하였던 자들로 구성된 조선교육위원회 제2분과 교육제도 분과위원회의 일원이었다. 방기중(1992), pp. 237-238. 나머지 6인(노동규, 박효삼, 이관구, 이하복, 정래길, 최순주)의 해방 후 행적에 관한 기록은 발견할 수 없었다.

10) 1945년 12월 미군정이 임명한 경성대학 법문학부 경제학 교수는 강정택(농업정책 교수), 박극채(화폐학 교수, 월북), 백남운(재정학 교수, 월북), 윤행중(경제학 교수, 월북), 최호진(경제사 조교수), 황도연(통계학 교수, 월북)이다. 이기준(1983), p. 193. 강정택의 활동에 대해서는 방기중(1992) 3장 1절 참조.

11) 한국경제학회의 1995년 회원록에는 남한 경제학자 중 일찍 작고한 분들이 분명 빠져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본문의 분석은 경향성에 관련된 것임을 분명히 해 두고 싶다. 한국경제학회 회원을 통해 보는 남한 경제학의 변화 동향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연구로 미룬다.

<표 1> 1920-1948년 경제학 교·강사 출신대학

(단위: 명 / %)

출신학교 연도	일본	일본관립대학				일본 사립대학	전문 학교	해방후 국내대학	구미 유학	불명	합계
		재국대학	상과대학	기타	소계						
1920 - 1945.8	26/74.3	20	11	9	-	6	-	-	5/14.3	4/11.4	35
1945.9 - 1946.7	36/94.7	26	17	9	-	10	-	-	1/2.6	1/2.6	38
1946.9 - 1948.9	72/87.8	40	22	16	2	31	1	2/2.4	1/1.2	78.5	82

출처 : 이기준(1983), p. 201.

<표 2> 한국경제학회 회원 중 1916-1945년 출생자 학위국 현황<sup>12)</sup>

(단위: 명 / %)

출생년도	대상자	학 위 취득자	학 위 취 득 국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기타
1916 - 1920	7	6	3/50.0	2/33.3	-	-	1/16.7	-	-
1921 - 1925	13	9	6/66.7	1/11.1	2/22.2	-	-	-	-
1926 - 1930	45	41	27/65.9	6/14.6	6/14.6	2/4.9	-	-	-
1931 - 1935	85	70	45/64.3	5/7.1	17/24.3	3/4.3	-	-	-
1936 - 1940	158	129	79/61.2	1/0.8	41/31.8	5/3.9	1/0.8	2/1.6	
1941 - 1945	197	154	62/40.3	7/4.5	69/44.8	7/4.5	2/1.3	1/6.5	6/3.9
계	505	409	222/54.3	22/5.4	135/33.0	17/4.2	4/1.0	2/0.5	7/1.7

자료 : 한국경제학회(1995), 『한국경제학회 회원록 1995』

주 : 회원 중 경영학 전공자는 제외. 1936-1940년 프랑스에는 벨기에가 포함됨.

12) <표 2>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해 두자. 먼저 출생년도보다는 학위년도가 더 적절한 변수일 수도 있으나,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일부의 경우(해외에서 공부하였으나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국내에서 경제학자로서 활동하던 중 중년 이후 해외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등) 학위국을 변수로 잡는 것이 사실 왜곡적일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끝으로, 한국경제학회 회원 명부를 기초로 파악한 것이므로, 일부 경제학자의 경우 누락되었을 수 있으며, 자료작업 중 오차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

남한 경제학계내 실질적 활동과 영향력 행사를 고려할 때, 1920년대 후반 출생자들이 학계의 중진이 되는 1960년대 중·후반부터 남한의 경제학계는 미국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한계이론에 기초한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직접적인 영향권 하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고 판단된다.<sup>13)</sup> 이는 남한 경제학이 분단 이전 한국 경제학의 원형을 형성하고 있던 사회주의경제학이나 고전학과경제학을 벗어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그리고 남한 경제학계의 학문적 주도권이 분단 직후 남한 경제학계를 구성하던 남한 경제학 1세대로부터 2세대로 넘어갔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경제학의 사회과학적 성격을 강조하여 서구의 경제학을 우리의 현실에 맞추어 변용하려는 관점보다는 경제학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관점이 남한 경제학계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다.<sup>14)</sup> 그리고 남한의 경제학계는 이제 미국의 경제학 교과서를 직접 가져와 사용하거나, 세계사적 보편성과 함께 학문적 선진성을 동시에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미국의 경제학 교과서를 모범으로 하여 제작된 경제학 교과서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sup>15)</sup>

남한의 경제학이 현대경제학의 주류를 이루는 미국 경제학내 주류 경제학, 소위 신고전파종합이라는 패러다임 하에 수리화된 경제학으로

13) 미국 경제학계 내에서 19세기 말부터 주류를 형성하기 시작하여 지배적 분파가 된 경제학은 제도학파나 고전학파가 아니라, '신고전주의적 한계학과'이다. 홍기현(1995) 참조.

14) 서구 경제학을 한국 현실에 맞추어 변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남한 경제학 1세대의 관점에 대해서는 Choi(1956) 참조. 이러한 관점과 더불어 그들의 학문적 출신은 남한 경제학 1세대들이 경제학계 내의 극단적 이념대립과 현실의 이념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계이론에 기초한 신고전학과 경제학에 극단적으로 경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한 해방후 진보적 학술진영에서 활동한 최호진에 대해서는 방기중(1992) 3장 1절 참조.

15) 남한 경제학 교과서가 변화해 온 역사의 한 단면을 국립서울대 경제학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논문으로는 정성기(1998) 참조.

나아가고 있을 때, 북한의 경제학은 주체사상을 정치경제학 체계의 철학적 기초이자 이론적으로 정당화해야 할 목표로 삼는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구축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 과정은 남한의 경우보다 훨씬 극단적인 방법으로, 북한 경제학계의 1세대에 해당하는 월북 경제학자들과 해방 전후에 활동하던 사회주의 이론가들 중 일부의 희생 위에 진행되었다.

북한의 공식문헌<sup>16)</sup>에 따르면, 해방 후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학계의 발전은 세 시기로 구분된다.<sup>17)</sup> 첫째 단계는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의 기간으로, "경제학계의 기성 간부들에 대한 체계적인 강습", 곧 "맑스-레닌주의 기본학습과 소련의 선진 경제학계의 성과와 경험의 습득"이 이루어지던 시기이다. 둘째 단계는 한국전쟁 기간으로, 북한 내 "각 대학에서 졸업생과 연구원 졸업생들이 계속 배출되"고 "소련에 파견되었던 첫번째 대학 졸업생들과 연구원을 졸업한 경제학자들이 돌아"온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에 "국가계획위원회 내에 과학연구계획국이 설치되"고, "경제학 연구기관으로서 경제법학연구소가 발족하였다"(1953년 3월). 셋째 단계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1960년까지로, 사회경제구성의 성격과 과도기 경제의 특성에 관한 논쟁을 통해 "경제학계에서도 '권위'가 뒤흔들리고 '대가'가 물러서"는 동시에 '당적 사상 체계'가 확립된 시기이다. 다시 말해, 바로 이 시기부터 북한에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이 공식화된 경제이론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주체의 정치경제학이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은 김일성이 권

16) 북한에서 발간된 논문 "해방후 15년간의 경제학계의 발전", 『경제연구』, 1960년 3호. 본 논문의 원문을 구하지 못하여, 이병천(1989, pp. 309-325)에 실린 텍스트를 이용하였다.

17) 이병천(1989), p. 312.

력구조와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된 권력투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면서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사상·문화 전 영역에서 유일한 권위를 획득하는 과정이다.<sup>18)</sup> 사실, 사회주의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정치권력과 사상·이론적 권위는 그리고 권력투쟁과 정책노선투쟁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사회주의 운동가·정치가·이론가는 실천과 이론의 영역에서 동시에 활동한다. 이런 점에서 경제학계의 변화는 당연히 정치권력 차원의 내부갈등과 연관되지 않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1950년대 북한 경제학계의 일차 변화는 남로당계의 숙청과 8월 종파사건이라는 권력투쟁과정을 겪으면서 이루어졌다. 특히 소련파를 주축으로 한 반김일성세력을 숙청한 8월 종파사건은 북한 경제의 사회주의개조의 경제성장정책을 둘러싼 정책노선투쟁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다. 그런데 체제이행과 경제성장에 관련된 정책은 이론적으로 사회경제구성의 성격과 과도기 경제의 특성에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최창익을 중심으로 한 경제이론가들이 제거된다.<sup>19)</sup>

이론·정책·노선·권력 차원의 투쟁 이후 정치적 억압을 거치면서 주

18) 이 시기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을 1950년대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이 형성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연구한 결과로는 김성보(1998) 참조. 아울러 서동만(1998), 김연철(1996), 이병천(1989) 참조. 또한 이 과정을 북한의 문헌은 다시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자세한 논의를 생략한다. 이병천(1989), pp. 314-320.

19) 북한의 공식 문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악당들(반당·반혁명 종파 분자 최창익 도당)은 자기들의 오랜 줄개인 소위 ‘신설정 그루뵤’ 송예정·임해·정일룡을 동원하여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부인하며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없는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운운하게 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해방후 우리나라에서 즉시로 사회주의혁명 단계에 들어섰다는 등, 우경 투항주의와 좌경 기회주의와의 사이를 왕복시킴으로써 어떠한 논거나 수법을 가릴 것 없이 하여간에 우리 당의 혁명노선과 정책을 허물어보자는 간책을 감행하였다.” 이병천(1989), p. 310. 송예정에 대해서는 김성보(1998), 서동만(1998) 참조.

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1960년대 초 체제정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나, 이론 차원에서는 완전한 체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반면 경제학의 기본 성격은 이미 이 시기에 규정되었다. 경제학자는 당 지도부의 정책을 해석하고 대중에게 보급하며, 당의 이론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첫째 임무로 맡게 되었다.<sup>20)</sup> 당연히 이후 북한 경제학은 최고지도자 김일성의 노선을 이론화하고 정당화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다른 모든 학문 분야에서처럼 유일지도자의 강령과 교시를 집단작업을 통해 해설하는 방식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 III. 비교 1 : 경제학의 정의<sup>21)</sup>

정치이념적으로 자유주의를 내세우는 남한에서 경제학은 인문·사회과학의 다른 분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를 띤다. 그렇지만 이미 살펴보았듯이 남북한 경제학이 분화과정을 거치면서, 1960년대 중반부터는 대학교육과정과 일반학술활동에서 자유주의근대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정형화된 경제학 체계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sup>22)</sup> 한국사회에서 지배적인 자유주의근대경제학의 이론체계는 일

20) “경제학계에서는 ... 통일된 견해를 가지지 못한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전후 시기 우리 당 경제정책의 총노선에 관한 문제이다.” 이병천(1989), p. 323. “경제학계는 당 정책을 해석 침투시키며, 당이 이미 발전시켜놓은 경제학의 성과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할 뿐만 아니라, 당면한 경제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당 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려는 혁명적 정열에 들끓고 있다.” 이병천(1989), p. 319.

21) 3-5장은 박순성(1997b)의 2-4장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내용의 재해석과 자료의 보충이 이루어졌다.

22) 한국경제학의 발전과정에 대한 개괄적 연구로는 한국경제학회(1991) 참조. 특히 자유주의근대경제학이 한국에서 자리잡게 된 정치사회적·이념적 배

반대학에 개설된 경제학개론이나 경제학원론 등의 강좌에서 이용되는 ‘경제학원론’ 교과서들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sup>23)</sup> 대부분의 경제학원론 교과서는 학문정의의 일반적 방식에 따라, 경제학의 근본 대상이라고 할 경제의 기본문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 이에 답하면서 경제학을 정의하려고 한다. 경제문제는 인간이 제한된 수단을 가지고 물질적 욕망을 달성하려는 경제활동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선택행위와 관련된 문제 혹은 선택될 행위의 효율성을 판단하고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 일반화된 개념화된 어법에 의하면, 경제문제란 경제주체가 희소성의 법칙<sup>24)</sup>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하는 자원배분문제이다. 따라서 경제학이란 ‘제한된 수단의 선택에 관한 학문’<sup>25)</sup> 혹은 ‘희소성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경제문제를 탐구하는 학문’<sup>26)</sup>으로 정의된다.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지배이데올로기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이라는 국가목표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 필요한 정치경제학 체제

경에 대해서는 같은 책 pp. 25~30 참조. 또한 한국의 경제학 교과서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정성기(1998) 참조.

- 23) 현재 대학교재용으로 발간된 ‘경제학원론’류는 필자가 접한 것만도 이십여종에 이른다. 필자는 그 중에서 일반대학에서 널리 사용되었거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순·정운찬(1992), 김균·이만우·이학용(1995), 임양택(1991), 김윤환(1982)을 활용하였다.
- 24) ‘희소성의 법칙’이란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고자 하는 무한한 인간의 욕구에 비해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인 자원은 상대적으로 유한한” 상태를 규정하는 개념이다. 김균·이만우·이학용(1995), p. 5.
- 25) 조순·정운찬(1992), p.9.
- 26) 김균·이만우·이학용(1995), pp. 5~6. “이처럼 욕망에 비해 이용가능한 여러 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경제문제의 본질이 있고, 이들 수단을 어떻게 가장 중요한 용도에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일어난다.” 김윤환(1982), pp. 9~10.

를 당-국가 차원에서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경제학은 사회주의적 국민경제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경제이론을 체계화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일성-수령을 중심으로 한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지배이데올로기 혹은 지배적 사회담론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학은 당-국가의 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정형화된 이론체계를 띠고 있으며, 경제이론의 전체상은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간되는 경제문헌을 통해 체계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북한은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에서 1985년 발간한 「경제사전」에서 경제학을 “사람들의 물질경제생활의 역사적인 발전단계에서 사회경제제도의 형성과 발전, 교체의 합법칙성을 밝히며 사회의 다양한 경제현상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일반화하며 물질적부의 생산과 리용에서 요구되는 실천적방안들의 작성을 자기의 기능과 과업으로 하는 과학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27)</sup> 무엇보다도 경제학의 과학적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경제사전」은 경제학이 경제생활의 합법칙성과 실천적 원리를 밝힌다는 점에서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하나의 과학체계를 이룬다”<sup>28)</sup>고 주장한다.

이러한 남북한의 경제학에 대한 정의를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경제학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일차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우선, 경제학이 경제생활 혹은 경제문제와 관련된 학문이라는 내용을 검토해 보자. 북한의 경제학은 사회의 물질경제생활 혹은 물질적 부의 생산·이용과 관련된 학문이라 규정된다. 「경제사전(1985) 1」에 인용된 김정일의 주장

27)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1」(1985), pp.116~7. 북한은 경제사전을 1970년에도 출판하였다. 이하에서 1985년 판 「경제사전 1」은 「경제사전(1985) 1」로, 1970년 판 「경제사전 1」은 「경제사전(1970) 1」로 표기한다.

28) 「경제사전(1985) 1」 p.117. 이 점에서 경제학은 “일명 경제과학이라고도 한다.” 「경제사전(1985) 1」, p.116.

에 따르면, “경제는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활동분야이며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를 이룬다. 사람들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며 그 결과에 얻어진 생산물을 분배하고 교환하며 소비한다. 이러한 경제생활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자기들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켜나간다.”<sup>29)</sup> 경제란 물질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인간이 벌이는, 자연을 정복·개조하는 것과 같은 생산활동 및 생산물의 분배·교환·소비활동이다. 이러한 북한 경제학의 관점은 근대경제학의 출발점이 되는 고전과정치경제학의 전통을 잇고 있는, 경제에 대한 전통적이며 일반적인 관점이다. 바로 이 점에서 북한의 경제학은,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인간들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맑스주의 정치경제학 비판의 전통이나 희소성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효용충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근대경제학의 관점에서부터 벗어난다.<sup>30)</sup> 그런데 자유주의근대경제학에 따르면 희소성의 법칙이 모든 인간 사회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며, 모든 사회의 공통된 경제문제는 한정된 자원을 이용한 생산과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배분이다.<sup>31)</sup> 비록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정복과 개조라는 개념을 통해 파악하고 있지 않고 또한 희소성의 법칙과 효용극대화를 강조하지만, 자유주의근대경제학도 경제문제의 핵심을 경

29) 『경제사전(1985) 1』, p. 116.

30) 비록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이 ‘사람’이 경제주체로서 갖는 지위와 ‘사회’의 생산관계와 경제관계에서 나타나는 집단 또는 계급의 이해관계’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이론의 중점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놓여 있다. 리기성(1992), pp. 22~3 참조.

31) “미국의 경제학자 사무엘슨에 의하면 모든 사회에 공통된 경제문제는 다음과 같다. (i)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즉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여 어떤 재화와 용역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ii)어떤 방식으로 생산할 것인가? 선택가능한 자원과 기술 중에서 어떤 자원과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iii)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생산된 재화와 용역, 즉 생산물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김균·이만우·이학용(1995), p. 4.

제행위의 대상인 제한된 자원으로 파악된 자연과 이를 이용하여 무한한 욕망을 충족하는 인간의 관계로 파악한다.<sup>32)</sup> 그리고 이는 인간의 경제행위에 대한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관점으로 귀착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경제학과 남한의 자유주의근대경제학은 경제행위를 자연이라는 외부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생산·분배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별 경제체제의 특수성을 사상하고 보편화되고 추상화된 경제행위의 차원에서 경제이론을 전개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북한의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이론체계에서 강조되는 네 범주는 생산, 분배, 유통, 소비이며, 남한의 경제학에서도 소비, 생산, 분배는 기본 범주이다. 바로 이 점에서 남북한의 경제학은 동일한 특성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경제학이 남한의 경제학과 달리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역사적 발전단계의 존재와 개별 발전단계에서 나타나는 경제체제의 형성·발전·교체의 합법칙성에 관하여 검토해 보자. 역사적 발전단계를 강조하는 이러한 관점은 북한 경제학이 경제이론의 초역사성을 부정하고 인간들의 경제활동을 경제제도라는 사회틀속에서 파악하려고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의 경제학은 경제활동을 규정하는 경제체도의 역사적 변화를 중시함으로써 스스로를 넓은 의미의 역사학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체도가 경제행위자들의 경제활동을 규정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북한의 경제학은 '사회 없는 개인' 혹은 '사회 이전의 개인'을 상정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한계를 벗어

32) 물론 경제학에 대한 정의에서 물질적 복지의 생산을 중시하는 물질주의적 정의(materialist definition)와 희소한 자원의 배분을 중시하는 희소성 정의(scarcity definition)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나, 경제학원론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경제학에 대한 대부분의 정의는 두 가지 관점을 절충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김윤환(1982), p. 18; 김수행 외(1992), pp. 5~13 참조.

나 제도주의 경제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경제학은 자유주의 근대경제학보다 역사성과 총체성을 좀더 강하게 띤 사회과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남한의 경제학원론 교과서들도 경제학이 사회과학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원들간의 이해대립에 의해 나타나는 갈등과 역사적으로 특수한 사회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고,<sup>33)</sup> 경제체제론을 경제이론의 중요한 분과로 파악하기도 한다.<sup>34)</sup>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원론의 이론적 기본골격은 시장기구에 기초한 자원의 배분문제를 경제학 전 체계의 기본문제로 다룸으로써 스스로 경제이론의 한계를 설정하고, 경제학의 역사성과 사회제도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만다. 사실 자유주의 근대경제학의 이러한 한계는 경제학이 로빈스(L. Robbins)에 따라 “주어진 목적과 희소한 수단간의 관계에 대한 인간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될 때 이미 정해진 것이라 하겠다.<sup>35)</sup> 그런데, 경제학의 개념적 정의에서 남한의 경제학보다 좀더 역사과학적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의 경제학은 경제이론의 실제적 구축과정에서 성격이 변모하고 만다. 주체이념에 기초한 북한의 지배이데올로기는 주체의 사회주의사회(경제체제)에서 계급이 소멸하고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이념적 구호가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북한에서 실제적으로 전파되는 경제이론에

33) 김윤환(1982), pp.18~20; 조순·정운찬(1992), pp.3~7. 특히, 조순·정운찬에 따르면, “경제학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경제활동을 어떻게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경제질서를 만들어 내는가를 밝히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질서와 제도가 어떻게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제약하는가를 알려주는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p.7)

34) 조순·정운찬(1992), 제14편; 김윤환(1982), 제1편 제4장; 임양택(1991), 제1편 제1장, 제8편 참조.

35) 김균·이만우·이학용(1995), p. 6.

서 역사성과 사회제도는 사라지고 오직 무계급성에 기초한 경제계획원리만이 유일지배체제를 위해 존재하도록 만든다. 결국 북한 경제학은 시장기구를 전제로 하는 자유주의근대경제학보다 오히려 더 몰역사적이고 더 추상적인 지배담론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 경제학의 경향은 경제체제의 특수성을 사상하고 경제생활의 보편적 성질을 강조하는 남한 경제학의 경향과 일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경제학이 사회과학으로서 갖는 실천적 측면에 대해 검토해 보자. 북한의 경제학은 이론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고, 경제학이 발견해 내는 경제생활의 합법칙성이 경제활동의 실천적 방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 경제학에서 나타나는 학문의 실천성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태도는 남한의 경제학원론 교과서에서도 대부분 강조되고 있으며,<sup>36)</sup> 이러한 태도는 사회과학의 근본 성격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학의 현실은 경제학에 대한 당위론적 주장에 비해 실천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북한 경제학의 경우를 보면, 실천성이 강조되면서 현실(정치와 이념)에 의한 이론(경제)의 규정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이론과 현실간의 거리가 무시됨으로써, 경제이론은 자체의 내재적 발전가능성을 상실하고 만다. 더구나 내재적 발전가능성을 상실한 북한의 경제학은 경직된 이념 하에서 낡은 이론에 집착하고,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잃고 만다. 결국

36) 경제학의 실천성과 실용성에 대한 논의는 조순·정운찬(1992), pp. 23~24; 김윤환(1982), p. 22 참조. 그런데, 대부분의 경제학원론 교과서들은 경제학의 실천성·실용성을 경제학이 규범과학으로서 지녀야 하는 특성과 연관시켜 논의하고 있다. 김윤환(1982), p. 22; 김균·이만우·이학용(1995), pp. 25~27 참조. 이러한 논의는 규범성과 실천성간의 차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규범성과 실천성은 상호연관되어 있으나, 규범성이 반드시 실천성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실천성은 규범성에 이론의 현실성 내지는 실현방안이 덧붙여지는 경우에 나타난다.

북한 경제학은 경제학 외부에서 정치적 요구에 따라 제시되는 실천강령에 의해 규제되는 수동적이고 패쇄적인 이론체제로, 나아가 지배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예측적 '과학이론'으로 전락하고 만다.<sup>37)</sup> 남한의 경제학도 대부분의 자유주의근대경제학과 마찬가지로 경제학의 실천성보다는 경제이론의 내적 정합성과 이론구성을 강조하는 순수경제학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sup>38)</sup> 사실 이러한 현실을 역으로 반영하여 일부 경제학원론 교과서들은 경제학의 실천성과 실용성을 새삼스럽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sup>39)</sup>

일반적으로 경제학과 경제체제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남북한 경제학은 경제학에 대한 개념적 정의 자체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개념정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격상 유사성을 지니기도 한다. 이는 아마도 경제학이 근대적 학문이며, 남북한 경제체제가 현상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대사회라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의 정의와 학문성격에서

37) 이는 북한의 경제학 문헌들이 한결같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적'에서 출발하고, 그들의 '강령적 교시'를 조합하는 담론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38) 이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남한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자각되기도 하였다. 김윤환(1999), 이지순(1999) 참조. 이지순(1999)은 지나치게 단순논리에 기초한 비판에 대해서는 반비판을 제시해 놓고 있다. 한편, 자유주의근대경제학이 순수경제학으로 발전하는 경향의 근저에는 가설연역적 방법이라는 근대경제학 이론구성의 특수한 성격이 놓여 있다. 경제이론의 가설연역적 방법론의 특성에 대해서는 김균·이만우·이학용(1995), pp.23~25 참조. 이현재에 따르면, 경제학은 '현상적인 본질성'보다는 '추론상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현재(1981), p. 6.

39) 이런 차원에서 최근 남한의 경제학계에서는 자유주의근대경제학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 사회제도와 경제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경제학 및 법경제학이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다.

확인되는 남북한 경제학의 추상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은 경제이론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북한의 경제학은 몰역사적·비현실적으로 변모하면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이라는 지배담론으로 변질되는 반면, 남한의 경제학은 합리적 경제주체들이 가상적인 순수시장기구 하에서 보여줄 경제행위에 대한 가설연역적인 순수경제이론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 IV. 비교 2 : 경제학의 체계

남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학의 분류체계는 남북한이 경제학의 학문적 성격과 연구대상·목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견해를 좀더 분명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구체적 차원에서의 차이점을 드러내 보여준다. 남한의 경제학원론 교과서 대부분은 경제학의 분류를 한 절로 다루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경제학은 일반적으로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라는 두 개의 분류체계로 나뉜다.<sup>40)</sup> 나아가, 때로는 경제학의 분석방법에 따라, 정태경제학과 동태경제학이 구분되기도 하고, 새로운 분석방법을 사용하는 분과로 수리경제학과 계량경제학이 특별히 거론되기도 한다.<sup>41)</sup> 경제학의 분류를 좀더 큰 틀에서 파악하여, 경제학이 경제사, 경제이론(협의의 경제학), 경제정책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경제학원론도 있다.<sup>42)</sup> 비슷한 맥락에서 경제학의 분류체계를

40) 전형적인 예로는 김균·이만우·이학용(1995), pp. 25~27; 조순·정운찬(1992), pp. 18~21 참조.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대부분의 경우 각각 소비자이론·생산자이론·산업조직론·시장이론·분배이론·일반균형이론과 국민소득결정이론·화폐금융론·경제정책론·경제성장론·경제체제론·국제경제론이다.

41) 임양택(1991), p. 16.

기술경제학(경제사, 경제통계), 이론경제학(경제이론), 응용경제학(경제정책, 경제계획)으로 나눈 후, 이론경제학을 경제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일반경제이론(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과 경제분석을 특정부문 또는 분야에 적용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재정학, 화폐금융론, 경기변동론, 경제성장론, 경제발전론, 국제경제학, 농업경제학, 노동경제학, 경제사회학, 산업경제학, 지역경제학, 도시경제학, 관리경제학 등)로 나누는 경제학자도 있다.<sup>43)</sup> 한편, 경제학의 전공별 분류를 빌어 경제학 분류체계를 살펴볼 수도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JEL(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의 분류방식에 맞추어 한국경제학회가 채택하고 있는 분류방식에 따르면, 경제학은 일반경제학·일반경제이론, 경제사상사·방법론, 경제사, 경제체제, 경제성장, 계량경제(수리경제 및 통계 포함), 화폐금융, 재정학, 국제금융, 국제무역, 경영(기업이론 및 회계학 포함), 산업조직(기술경제학 포함), 농업경제(경제지리 포함), 노동경제(인구경제학, 인적자본 포함), 복지(소비경제학, 도시경제학, 지역경제학 포함) 등의 분과로 구분된다.<sup>44)</sup>

42) 김윤환(1982), pp. 35~39.

43) 이현재(1981), pp. 8~9. 경제사회학은 노동행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노동경제학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관리경제학은 경제분석을 개별기업의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이론으로 정의된다. 참고로 스펀터에 따르면, 경제분석의 형태는 경제사(Economic History), 통계학(Statistics), 이론(Theory), 경제사회학(Economic Sociology), 정치경제학 혹은 경제정책(Political Economy), 응용분과(Applied Fields)로 나뉜다. J. A. Schumpeter(1954), pp. 12~24.

44) 한국경제학회(1991), pp. 56~57, p. 115 참조. 한국경제학회가 1996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경제학문헌연보」가 JEL의 분류기준에 따라 채택하고 있는 분류기준에 따르면, 위의 내용은 약간의 변화가 있다. 이를 보면, 경제학은 일반경제학·경제학교육, 방법론·경제사상사, 수리적·수량적 방법,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화폐경제학, 국제경제학, 재무경제학, 재정학·공공경제학, 보건·교육·복지, 노동·인구경제학, 법경제학, 산업조직, 기업경영·

북한의 경우, 경제학 분과의 분류체계는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북한의 경제학 분류와 연관시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경제학 분과의 세분화와 발생을 경제생활의 발전에 따른 경제학의 실천적 응용의 결과로 파악하고,<sup>45)</sup> 나아가 개별 경제과학 분과들의 관계를 분화의 측면에서만 파악하지 않고 상호침투하고 보충하면서 경제과학의 통일적 발전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한다는 점이다.<sup>46)</sup> 북한은 경제학의 분과를 우선적으로 대상의 특성에 따라 일반경제학, 전문경제학, 부문경제학으로 구분한다. 경제과학의 일반학이요 기초학이라 불리는 일반경제학은 경제과정 전반 또는 경제구조 전체를 다루는 학문분과이며, 정치경제학, 인민경제사, 경제학설사를 포함한다.<sup>47)</sup> 전문경제학과 부문경제학은 각각 정치경제학의 기본명제에 기초하여 총체적 경제과정의 일정한 측면이나 특수한 내용만을 다루거나(일반에 대한 특수의 관계로서 전문경제학 : 경제통계학, 부기계산학, 경영활동분석 그리고 재정, 화폐류

---

기업경제학·마케팅·회계학, 경제사, 경제발전·기술변화·성장, 경제체제, 농업·자원경제학, 도시·농촌·지역경제학, 기타 특정 주제(일반, 문화경제학)로 분류된다.

- 45) 「경제사전」에 따르면, 역사학문의 성격을 지닌 경제학의 발전은 단순히 경제생활의 발전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실천적 의지에 기초한 의식의 발전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하나의 단일한 경제학으로부터 오늘의 세분된 여러 과학분과들로 이루어진 경제과학으로의 발전은 사회적생산력의 발전, 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의 심화발전에 의하여 이루어진 역사적인 산물이다. 사람들의 사회경제생활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경제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리해가 확립되게 되었다.” 「경제사전(1985) 1」, p. 117.
- 46) “매개 경제학은 자기의 고유한 대상과 방법을 가지면서도 호상침투하고 호상보충하면서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경제사전(1985) 1」, p.117. 남한의 경우에도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의 상호보완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제학원론 저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 47) 북한은 정치경제학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모든 경제과학들, 개별경제학들의 이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가 된다”라는 지위를 부여한다. 「경제사전(1970) 1」, p. 99.

통, 가격학, 노동경제학, 인민경제계획화, 경제수학적방법<sup>48)</sup> 등), 특수한 영역 또는 부문만을 다룬다(전체에 대한 부분의 관제로서 부문경제학 : 공업경제학, 농업경제학, 건설경제학, 운수경제학, 상업경제학, 무역경제학<sup>49)</sup> 등). 또한 경제학의 실천적 성격을 강조하는 북한은 객관적 경제법칙을 다루면서 경제실천에 원리를 제공하는 기초경제학(자본주의이전정치경제학, 자본주의정치경제학, 사회주의정치경제학 등)과 “부문적인 또는 국부적인 과업의 해결, 구체적인 경제적 기준과 과업의 설정, 경제적조종의 개선완성과 관련된 대책들의 작성을 목적으로 하며 경제실천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복무”하는 응용경제학(경영학, 재정학, 노동경제학 등)을 구분한다.<sup>50)</sup> 북한에서 제시하는 기초경제학/응용경제학 구분에서 주목할 점은 정치경제학을 핵심으로 하는 기초경제학이 지배이데올로기를 담아내는 사회담론으로, 정책·실용과학의 성격을 띤 응용경제학이 과학이론보다는 경제활동의 실무지침서와 같은 형식으로 발

48) 엄밀하게 본다면, 경제수학은 ‘취급하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경제적 과정의 일정한 측면 또는 특수한 면만을 본다는 기준에는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경제수학의 경우에는 방법론적 특수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수한 방법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의 특수한 측면만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수학을 전문경제학이라고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49) 부문경제학의 각 분과는 내부에서 다시 세분화된다. 예를 들면, 공업경제학은 전력공업경제학, 석탄공업경제학, 기계제작공업경제학, 방직공업경제학으로, 농업경제학은 농산경제학, 축산경제학, 산림경제학으로 분화된다. 『경제사전(1970) 1』, p. 99.

50) 『경제사전(1985)』, p. 118. 기초경제학과 응용경제학은 ‘일반원리를 다루는 과학’과 ‘실천적 수단을 제시하는 기술’이라는 두 극단적인 개념 및 ‘전체적·포괄적 이론’과 ‘부분적·실천적 이론’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구분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사회경제제도발전의 합법칙성에 맞는 합리적·효과적 경영방법과 실천방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초경제학과 응용경제학이 밀접히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초경제학을 무시한 응용경제학은 경험주의에 빠지거나 경제 전반에 손실을 줄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한다.

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현재 북한의 경제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분과는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과 '주체의 경제관리론'이다.<sup>51)</sup> 북한의 경제학 분류체계에서 보면,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은 사회주의경제에서 작용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법칙과 범주를 다루는 일반경제학으로 전문경제학과 부문경제학의 바탕이 되는 동시에 응용경제학의 출발점이 될 이론적 내용들을 제시하는 기초경제학이다. 여기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은 정치경제학 방법론,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기본방식,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활동의 과도적 특성, 사회주의노동이론, 생산·분배·유통·소비이론, 사회주의적 재생산론 등이다. 응용경제학에 해당하는 '주체의 경제관리론'은 전문경제학 분야에 속하는 경영학의 일반원리와 함께 부문경제학에 해당하는 공업경영학과 농업경영학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리, 기본원칙, 경제관리체계, 경제관리방법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한 경제학의 분류체계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남한 경제학에서 강조되는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의 구분은 북한 경제학의 분류에서는 부각되지 않는다. 이는 북한 경제학의 경우 이미 경제학 자체의 실천성과 이념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남한 경제학에서 제시된 이론경제학과 응용경제학의 구분은 북한 경제학에서 제시되는 기초경제학과 응용경제학의 구분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 경제학의 경우 기초경제학인 정치경제학의 이념성이 좀더 강조된다고 하는 측면과 응용경제학들이 경제이론보다는

51) 두 분과의 교과서라고 할 만한 저서로는 리기성(1992); 한득보(1992); 박영근·김철제·리해원·김하룡(1992)이다.

실무지침이나 기술교재의 성격을 좀더 지닌다는 측면이 지적되어야 한다. 셋째, 경제학 분류에서 볼 때, 남한에서는 경기변동론·국제경제학·국제무역·국제금융·복지경제학·소비경제학 등이, 북한에서는 ‘주체의 경제관리론’이라는 경영학 부문이 두드러진다. 이는 남북한 경제체제와 경제성장정책의 차이(자유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정책; 명령형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를 반영하는 것이다.

### V. 비교 3 : 경제학의 동향

남북한 경제학의 비교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분야의 하나는 경제학의 동향이다. 남북한 모두는 경제학을 외부로부터 도입하여 나름대로 자신의 경제학 체계를 세우려고 한 국가이다. 더욱이 남북한은 경제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대국민국가 수립이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급속한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이론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컸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학의 동향을 비교함으로써 양 사회에서 경제학이 갖는 의미와 위치를 어느 정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장차 남북한 경제학간의 접근·통합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남한 경제학의 연구동향은 한국경제학회에서 발간하는 「경제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전공별 구성비가 보여주는 변화추세 및 경제학계 일반에서 발표된 논문의 분야별 구성을 기초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 「경제학연구」 게재 논문의 전공별 구성비 변화

분류	53-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5	96-99	전시기
일반경제학	5	4	2	4	5	8	9	47	43	127
일반경제이론	14.3	16.0	6.7	10.5	13.5	12.5	14.5	24.1	20.6	18.3
경제사상사 방법론	5	0	0	1	2	0	2	10	11	31
	14.3	0	0	2.6	5.4	0	3.2	5.1	5.3	4.5
경제사	7	4	6	8	11	6	2	5	8	57
	20.0	16.0	20.0	21.1	29.7	9.4	3.2	2.6	3.8	8.2
경제체제	0	2	0	1	0	1	3	11	8	26
	0	8.0	0	2.6	0	1.6	4.8	5.6	3.8	3.7
경제성장	3	2	5	2	3	12	11	11	11	60
	8.6	8.0	16.7	5.3	8.1	18.8	17.7	5.6	5.3	8.6
계량경제	4	0	1	2	2	4	3	4	3	23
	11.4	0	3.3	5.3	5.4	6.3	4.8	2.1	1.4	3.3
화폐금융	2	1	1	2	1	1	1	10	22	41
	5.7	4.0	3.3	5.3	2.7	1.6	1.6	5.1	10.5	5.9
재정학	0	2	1	0	3	1	4	9	14	34
	0	8.0	3.3	0	8.1	1.6	6.5	4.6	6.7	4.9
국제금융	0	0	0	1	1	2	4	8	12	28
	0	0	0	2.6	2.7	3.1	6.5	4.1	5.7	4.0
국제무역	2	0	2	3	0	3	4	19	13	46
	5.7	0	6.7	7.9	0	4.7	6.5	9.7	6.2	6.6
경영	0	3	3	0	1	5	3	4	4	23
	0	12.0	10.0	0	2.7	7.8	4.8	2.1	1.9	3.3
산업조직	1	1	4	3	1	9	5	18	23	65
	2.9	4.0	13.3	7.9	2.7	14.1	8.1	9.2	11.0	9.4
농업경제	3	3	4	6	3	3	2	7	5	36
	8.6	12.0	13.3	15.8	8.1	4.7	3.2	3.6	2.4	5.2
노동경제	2	2	1	1	1	6	7	23	23	66
	5.7	8.0	3.3	2.6	2.7	9.4	11.3	11.8	11.0	9.5
복지	1	1	0	4	3	3	2	9	9	32
	2.9	4.0	0	10.5	8.1	4.7	3.2	4.6	4.3	4.6
합계	35	25	30	38	37	64	62	195	209	69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 약사 1953-1989」, p.112; 「경제학연구」 제38집 1호(1990.6)~제47집 4호(1999.12)

&lt;표 4&gt; 경제학계 일반 기간별·분야별 경제학 논문구성(1971-1985)

	1961-65	1966-70	1971-75	1976-80	1981-85
일반경제	177 / 265	250 / 204	386 / 173	312 / 164	437 / 151
경제성장	96 / 144	152 / 124	242 / 109	241 / 127	379 / 131
계량경제	12 / 18	33 / 27	94 / 42	95 / 50	189 / 66
화폐·재정	66 / 99	72 / 59	105 / 47	109 / 57	306 / 106
국제경제	67 / 100	149 / 122	468 / 210	295 / 155	599 / 194
산업조직	30 / 45	54 / 44	109 / 49	188 / 99	357 / 124
농업	95 / 142	216 / 176	339 / 150	339 / 178	323 / 112
노동	85 / 127	197 / 161	325 / 146	174 / 91	198 / 69
복지	39 / 58	101 / 83	161 / 72	150 / 79	137 / 47
계	667 / 100	1,224 / 100	2,229 / 100	1,903 / 100	2,885 / 100

출처: 강명규(1987), “한국경제학의 성장구조 - 197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경제논집』(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제26권 제4호, p. 535.

위의 두 표를 참고하여 한국 사회에서 발표된 경제학 논문의 주제별 변화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연구동향을 확인해 보자. 첫째, 경제사상사·방법론·경제사·경영·농업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논문의 비율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국제금융·산업경제·노동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논문의 비율은 비교적 상승하였다. 이는 한국경제가 산업화·국제화되면서 경제학의 관심이 경제학 자체나 경제사보다는 경제성장의 결과로 나타난 경제현상과 경제문제에 더 많이 기울어져 왔음을 보여준다.<sup>52)</sup> 또한 이는 경제학계의 발전에 따라 경제학의 전문분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경영에 대한 논문이 1970년대에 줄어든 것은 경제학과 경영학간의 학문적 분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

52) 이는 한국경제학회에 소속된 경제학자들의 전공분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경제학회(1991), pp. 118~119.

을 나타내 준다.<sup>53)</sup> 둘째, 1960년대 중반부터 경제성장에 대한 논문의 구성비가, 1980년대부터는 계량경제·화폐금융·재정학·국제금융·국제 무역 등과 관련된 논문의 구성비가 증대하고 있다. 이 현상은 한국경제 학계 내에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의 수가 증대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sup>54)</sup> 아울러,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화폐금융에 대한 논문의 숫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셋째, 위의 표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나, 경제학에서 수리적 기법과 계량경제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하는 논문의 비율이 각각 1970년대 중반과 196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고 있다.<sup>55)</sup> 넷째, 1990년대에 들어와 특기할 만한 사실로서 북한경제, 남북경제교류, 동북아경제, 통일 이후 경제체제 등에 관한 논문이 「경제학연구」에 실리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한국의 경제학계에서도 북한경제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sup>56)</sup> 이는 장차 남북한 경제의 통합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

53) 한국경제학회의 전공별 회원구성비를 보면, 경영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2년 17.8%에서 1963년 12.2%로 하락한 후, 1980년대 초까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경제학회(1991), p. 119.

54) 미국의 한국인 경제학박사 배출수는 1972년 이후 꾸준히 증대하다가, 1988년 현재 한국경제학회 회원 중 최종학위취득국가가 미국인 경제학자의 비율이 34.5%로 1위를 차지하였다. 한국경제학회(1991), p. 100.

55) 방정식 5개 이상을 사용한 논문의 비율은 「경제학연구」의 경우 1970~74년 21.1%에서 1975~79년 24.3%, 1980~84년 37.5%를 증가하였으며, KER에서는 71.6%에 달한다. 한편 계량경제학적 분석의 비율은 「경제학연구」의 경우 1965~69년 처음으로 16.7%를 기록한 후 꾸준히 증가하며, KER에서는 56.7%를 기록하였다. 한국경제학회(1991), pp. 105-106.

56) 전통적으로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은 정치학에서 주로 나타났다. 경제학에서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은 「경제학연구」 제43집 1호(1995.7)에 북한경제, 통일경제, 남북경제교류를 다루는 특집논문이 3편 실렸다는 사실이다. 1996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경제학문헌연보」는 “남북한 경제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P6 남북한 경제교류’ 항목을 추가”해 두었다(P는 경제체제임). 한편 여기에서는 한국 사회 내

제학의 통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섯째, 위의 표만으로는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지만, 전통적인 경제학 분류체계에서는 잘 파악되지 않는 법경제학, 환경경제학, 문화경제학 등에 대한 논문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상당 수 발표되기 시작하였다.<sup>57)</sup> 이는 위의 <표 3>에서 일반경제학·일반경제이론으로 분류되는 논문의 숫자가 증대하기 시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영역의 발달은 남북한 경제학 사이에 괴리를 확대하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북한 경제학의 경우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약 50년이란 기간동안 일정한 변화가 있었다. 변화의 내용은 경제학의 연구대상의 변화와 새로운 경제학 분과들에 대한 관심 증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변화는 김일성 저작에 나타난 경제 관련 논문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근로자」에 나타난 경제 관련 논설들, 1970년과 1985년에 각각 편찬된 「경제사전」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김일성 저작과 「근로자」에 실린 경제 관련 논문·논설의 주제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경제학 연구대상의 변화를 보여주고,<sup>58)</sup> 「경제사전」에서 발견되는 변화는 경제학 이론영역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김일성 저작과 「근로자」에 게재된 경제 관련 논문·논설의 주제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회주의 경제계획 및 경제건설 일반에 대한 논문·논설이 꾸준히 증가한다.<sup>59)</sup> 특히,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

비주류경제학의 변화동향을 다루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경제학회(1991), p. 72 참조.

57) 1996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경제학문헌연보」에는 K 법경제학, Q2 재생 가능 자원 및 보존: 환경관리, Q3 재생불가능 자원 및 보존, Z1 문화경제학 등의 분류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58) 이 부분은 김병로(1993)와 이교덕(1995)에 일차적으로 의존하였다. 박순성(1997a)에 제시된 <표 2>(p. 279)와 <표 3>(p. 280) 참조.

59) 1970년대 김일성 저작에서 경제계획·경제통계로 분류되는 주제의 빈도가 떨어지지만, 1970년대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김정일의 저작 중 이

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조한 논문·논설이 늘어난다. 이 점은 북한의 경제학이 주체 사상의 강조와 함께 이론적 측면보다는 이념적·사상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1964년 김일성의 “우리나라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발표됨에 따라 70년대까지 농업문제에 관한 연구가 북한에서 활발하였으나, 80년대 이후 농업 분야에 대한 연구가 감소하고 있다.<sup>60)</sup> 셋째, 80년대 이후부터 인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경공업 및 지방공업에 대한 논문·논설이 증대하며, 이 사실은 북한 인민생활이 궁핍해짐에 따라 당의 관심이 인민생활에 점차 집중됨을 보여준다. 넷째, 국내의 상업·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고 있으나, 대외무역에 대한 관심은 80년대부터 급속도로 증가한다. 이는 북한의 경제정책이 80년대부터 대외개방(외자유치 및 지역개방)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sup>61)</sup>

북한이 1970년과 1985년 두 번에 걸쳐 편찬한 「경제사전」은 경제학

---

시기에 나타난 경제 관련 논문 10편 중 8편이 경제건설 일반 및 당의 경제에 대한 지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향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김병로(1993) 참조.

- 60) 1985년 이후 김일성 저작에서 농업에 관한 강조가 증가하는 것은 북한의 식량문제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일성 저작집」 39~44권 참조.
- 61) 경제학 전문잡지인 「경제연구」에서도 1980년대 말부터 대외무역에 대한 논문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특히 북한이 나진·선봉지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한 1991년 말 이후 새로운 무역체계에 대한 논문이 계속되었으며, 1993년 말 무역제일주의를 선포한 이후에는 무역에 대한 논문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신무역체제와 관련한 대표적 논문으로는 리신효(1992), 무역제일주의와 관련한 대표적 논문으로는 조강일(1994)을 볼 것. 무역과 관련한 논문으로는 류정렬(1987), 장상영(1991), 백창식(1992), 오기철(1992), 최원철(1993), 리신효(1994), 김영철(1995), 리신효(1995), 서성준(1996), 채재득(1996), 리명숙(1996), 최영옥(1997), 리성희(1997), 최영철(1998), 이정용(1998), 최문수(1998), 오철진(1998), 최영옥(1999), 김철용(1999), 채일출(1999), 리경숙(1999), 김득삼(1999)을 볼 것.

이론영역의 변화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경제사전(1970)」에 표제어로 나타나지 않았던 경제수학적 모형, 경제수학적 모형화, 경제수학적 방법, 선형계획법, 수리계획법, 수리통계학, 수리학과, 수리운영학 등의 용어들이 「경제사전(1985)」에 등장한다. 이는 한편으로 계획의 과학화·단일화를 강조하는 북한 지도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 경제학에서 경제수학 혹은 수리적 방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1980년대부터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의 밑에는 경제학에 대한 북한 경제학자들과 북한 지도부의 태도변화가 분명 깔려 있을 것이다. 사실, 「경제사전(1970)」의 ‘경제통계학’ 항목에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이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게 되고 생산에 참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계획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통계학의 새로운 한 부문으로 (경제통계학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부르쵸아변호론자들이 말하는 《경제통계학》이란 《수리경제학》 또는 《수리통계학》의 한 분과에 지나지 않으며 경제현상을 수학기식에 맞추거나 수학의 경제분야에의 적용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를 미화분식하는데 복무하고 있다”고 수리적 방법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다.<sup>62)</sup> 그러나, 「경제사전(1985)」에 ‘경제통계학’ 대신에 표제어로 올라있는 ‘수리통계학’ 항목에서는 “수리통계학이 지난 시기 사건들의 경과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외부적조건이나 내부적조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 연구하려는 현상이 앞으로 확률적으로 어떻게 발전하겠는가 하는것을 내다볼수 있게 한다는것은 경제실천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언급하면서, 수리통계학의 중요성을 인정한다.<sup>63)</sup> 또한 수리적 방법에

62) 「경제사전(1970)」, 1권, pp.96~97.

63) 「경제사전(1985)」, 2권, p.93. 경제학에 있어서 수학적 방법이나 수리적 방법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수리운영학’, ‘경제수학적모형화’, ‘경제수학적방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 경제학 전문잡지인 「경제연구」에서도 1990년대부터 관련 논문들이 등장한다.<sup>64)</sup> 둘째, 경영학 일반과 경영조종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는데, 이는 북한에서 기업소 관리의 과학화를 강조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근로자」에서 경영활동개선에 대한 논설이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속도로 증대한 것도 이러한 경향의 반영으로 보여진다.<sup>65)</sup> 이상과 같이 경제수학, 수리적 방법, 경영학 일반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북한에서 점차적으로 경제이론이 가진 중립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유추해 본다면, 이념과 정책 사이에서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던 경제이론이 역설적으로 북한 경제의 침체와 함께 북한 지도부로부터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학의 연구동향을 비교할 때, 세 가지 정도의 의미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체제와 경제성장단계의 차이가 경제학의 연구동향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경제 성장에 대한 남북한 공통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자유자본주의체제를 취한 남한의 경우 연구의 중점은 국제무역·국제금융·노동경제 등으로 점차 이동하였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여전히 경제계획과 당지도가 연구대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 경제의 침체와 인민생활 조건의 악화에 따라 경공업·지방공업·농업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최근

법' 등의 항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64) 1990년대 이후 「경제연구」에 게재된 수리적 경제논문으로는 김용철(1990), 윤재창(1991), 한철(1991), 리학주(1992), 태광용(1994), 김용철(1994), 김용운(1997), 강성일(1999) 등을 볼 것.

65) 「경제연구」에서도 경제조종학, 전자계산기화, 경영활동과학화에 관련된 논문들이 1990년대 이후 종종 등장하고 있다. 퇴창훈(1990), 퇴창훈(1991), 이정용(1991), 주락보(1991), 리동준(1992), 김원석(1992), 윤재창(1993), 리동식(1994), 리춘광(1998) 볼 것.

다시 높아졌다. 둘째, 경제학 방법내지는 새로운 연구분과와 관련하여 남북한 모두 수리적 방법과 계량적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심 증대의 시차는 약 20여년이 난다. 이는 남한 경제학계의 빠른 발전과 경제학의 수리적·계량적 방법에 대한 북한 경제학계의 늦었지만 실제적인 태도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수리적·계량적 분석도구가 남북한 경제학에서 보편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북한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점은 경제학에서 이념과 이론의 구분이 모호하던 상태가 점차 극복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남북한간에 경제분석도구 내지는 이론적 방법에서 접근가능성이 생겨날 것이다. 셋째, 북한 경제학이 최근 대외경제·경제개방·시장경제원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와 관련이 있지만, 이는 남북한 경제학의 학술교류 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갖게 한다.

## VI. 남북한 경제학의 통합 전망과 과제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세 가지 정도의 주요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남북한 경제학의 분화과정에서 남북한의 정치사회적 환경, 특히 정치사적 조건이 남북한 경제학의 이질화에 근본적인 규정력으로 작용하였다. 해방 직후 이미 형성되어 있던 사회주의경제학과 비사회주의경제학의 대립은 정치적 분단에 따른 경제학자들의 공간적 재배치와 한국전쟁 이후의 이념적 '세척'을 거치면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과 자유주의근대경제학의 대립이라는 좀더 극단화된 형태로 재생산되었다. 둘째, 남북한 경제학의 체계와 동향과 관련해서는 경제체제의 성격과 경제발전의 성과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외형적 차원

에서 자유자본주의를 경제체제의 이념형으로 내세운 남한에서는 비교적 순수경제이론 중심의 경제학이 자리를 잡았으며,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개방적 발전전략이 구체화됨에 따라 각 시기별로 다양한 경제학 분야들이 주목을 받았다. 반면, 유일지배체제 하의 북한에서 경제학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념적 담론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령형 계획경제의 실현에 필요한 기능적인 실무이론으로 변화해 가는 성격을 보였다. 그런데 엄격한 이념적·조직적 통제 때문에 극단적으로 정체해 있는 북한의 경제학이지만, 1980년대 이후 경제위기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연구분야와 연구방법에서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의 추상적 정의에서는 경제문제의 해결이라는 동일한 목표가 강조되고 있다. 이는 체제경쟁하에서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경제주의가 남북한 경제학에서 지배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남북한 경제학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함께 추상적 차원의 유사성을 확인해 준 세 가지 결과로부터 남북한 경제학의 통합 전망, 무엇보다도 통합의 조건 및 가능성과 관련한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다. 우선, 남북한의 정치사회체제가 경제학에 대해 갖는 규정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경제학의 통합을 위해서는 정치사회적 조건의 변화가 요구된다. 현재 남한 사회에서는 민주화의 성과로 학문세계에 대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제약이 상당 정도 해소된 상태이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통제의 차원에서 학문의 자유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체제의 경직성은 자칫 북한 체제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날 경우, 북한 사회구성원을 정신적 공황상태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 사회의 이러한 차이는 남북한 경제학의 통합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음으로, 남북한 경제체제와 경제발전의 차이는 남북한 경제학의 이론적 접합의 가능성을 줄이는 중요한 장애요인이다. 따라서 현재 남북한 사이에 추진되고 있는 경제교류협력은 단순히 경제적 차이를 줄이는 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학의 차이를 줄이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다. 최근 남북한 사이에 경제교류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남한 경제학계에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관심과 함께 북한 경제와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sup>66)</sup> 북한에서도 경제의 개방이 느린 속도로나마 진행됨에 따라, 시장 경제원리에 대한 관심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북한 경제인들의 직접 접촉은 경제행위원리뿐만 아니라 경제이론의 학습과정으로서 일정한 기능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추상적 차원에서 남북한 경제학이 동일하게 경제문제의 해결을 경제학의 근본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은 남북한이 경제문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때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비록 현재 남북한 사이에 공통의 경제문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남한의 경험은 '후발국' 북한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적 불안정, 빈곤, 저발전 등의 문제를 자본주의세계경제체제 속에서 극복한 남한의 경험은 앞으로 개방전략을 가속화할 북한에게 좋은 연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만일 남북한이 경제통합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된다면, 경제학 차원에서의 통합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전반적으로 남북한 경제학의 통합 전망은 단기적으로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정치사회적 조건을 비롯하여 경제체제·경제발전단계·경제문제 등에서 남북한이 보여주는 차이는 현재 남북한이 경제학에서 공

66)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학연구」에 게재된 10여편의 논문들, 「경제학문헌연보」에 등재된 논문들, 이지순(1999)의 지적 등은 주요한 징표이다.

유하고 있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동시에 앞으로 통합을 위해서는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학의 통합을 위해서는 최근 남북한의 경제학 및 경제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학의 통합에 유리한 정치·사회·경제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남북한 경제학의 통합을 위해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할 과제를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첫째, 경제학이 경제현실의 제약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경제현실을 연구하는 작업은 상대방의 경제학을 연구하는 작업에 우선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경제현실을 연구함으로써 상대방의 경제학을 좀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제현실과 경제학도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상대방과 자신의 경제체제, 경제행위, 경제학 등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교류·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문적 차원에서 남북한 경제학자들간의 교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고 학술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작업은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없으나, 학문의 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일차적으로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기 힘들다면, 경제학의 분석기법에서 앞서 있는 남한이 최근 북한의 관심분야인 통계·계량·수리·정보화·국제경제 등의 분야에서 북한에게 교류·협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들은 북한의 경제체제와 직접 관련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인과 경제학자에게 학문적 정

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제삼국에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 남한의 경제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최근 남한 정부가 북한에게 제안한 경제공동체 건설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제전문가들 중심으로 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범위는 좀더 확대되어야 한다. 나아가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에도 경제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좀더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장차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이 동북아차원의 지역협력으로 발전할 때, 남북한이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노력은 정당화될 수 있다.

끝으로, 경제학의 통합은 단순히 경제영역만을 중심으로 추진될 문제가 아니다. 경제이론의 통합, 그리고 경제체제의 통합은 남북한 인문사회과학의 통합, 그리고 남북한 사회의 통합이라는 포괄적 차원의 중장기적 구상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독일 통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통일의 진정한 완성은 경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과 문화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칫 남한중심적 가치관에 따라 이루어질 위험이 있는 경제학 분야와 경제 분야의 통합은 의식과 문화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sup>67)</sup> 그리고 의식과 문화의 통합은 단일한 의식과 문화의 형성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관의 공존을 인정하는 정치문화의 형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67)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경제영역에서만 아니라 학문영역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분야에서, 서독 중심의, 특히 근대화이론 중심의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슈타이너(1999), 박영은(1999) 참조.

### <참 고 문 헌>

- 장명규(1987), “한국경제학의 성장구조 - 197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논집』 제26권 제4호.
- 강성일(1999), “경제수학적방법의 적용은 과학적인 계획작성의 중요방도,” 『경제연구』 1999년 4호.
- 김균·이만우·이학용(1995), 『경제학원론』, 서울: 태진출판사.
- 김대환(1995), “통일경제체제와 국가의 역할,” 한겨레신문사,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
- 김득삼(1999), “《국지경제권》의 형성을 통한 동남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의 강화,” 『경제연구』 1999년 2호.
- 김병로(1993), 『김일성저작 해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김성보(1998), “195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논의와 귀결 -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서울: 역사비평사.
- 김수행 외(1992), 『경제학개론』, 서울: 비봉출판사.
- 김연철(1996),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1953-70):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영철(1995), “국제봉사무역의 내용과 특징,” 『경제연구』 1995년 3호.
- 김용운(1997), “모의모형화는 경제수학적방법의 적용범위를 넓혀주는 합리적방법,” 『경제연구』 1997년 1호.
- 김용철(1990), “경제수학적방법에 의한 생산계획작성은 경영활동의 과학화, 합리화의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1990년 제4호.
- 김용철(1994), “인민경제부문계획화에서 경제수학적모형화방법의 리용,” 『경제연구』 1994년 3호.
- 김원석(1992), “경제조종학이 이룩한 성과를 잘 리용하는것은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요구,” 『경제연구』 1992년 2호.
- 김윤환(1982), 『경제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 김윤환(1999), “한국 경제학의 회고와 반성,”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위기와 한국 경제학: 반성 및 과제」(심포지움 논문집).
-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39~4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철용(1999), “사회주의사회에서 수출무역의 경제적효과성에 대한 이해,” 「경제연구」 1999년 1호.
- 최창훈(1990), “계획통계계산의 전자계산기화는 경영활동과학화의 절박한 요구,” 「경제연구」, 1990년 2호.
- 최창훈(1991), “전자계산기화와 생산의 효과성,” 「경제연구」, 1991년 1호.
- 류정렬(1987), “자립적민족경제발전과 나라들사이의 경제적교류,” 「경제연구」 1987년 3호.
- 리경숙(1999), “대의상품시장정보의 체계적수집,” 「경제연구」 1999년 2호.
- 리기성(1992),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1: 사회주의경제의 전반적령역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과 범주」,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리동식(1994),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국가통계계산의 전자계산기화가 노는 역할, 「경제연구」 1994년 4호.
- 리동준(1992), “경제관리업무자동화체계의 본질과 특징,” 「경제연구」 1992년 1호.
- 리명숙(1996), “국제경제협작의 본질적특징,” 「경제연구」 1996년 4호.
- 리성희(1997), “합작기업의 본질적특징과 그 역할,” 「경제연구」 1997년 2호.
- 리신효(1992),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특징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 1992년 4호.
- 리신효(1994), “수출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 「경제연구」 1994년 3호.
- 리신효(1995),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주요특징과 그 전망,” 「경제연구」 1995년 4호.
- 리정용(1991), “경영활동과학화의 필요성과 방도,” 「경제연구」 1991년 3호.
- 리정용(1998),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외무역을 적극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몇

- 가지 문제,” 「경제연구」, 1998년 2호.
- 리춘광(1998), “프로그램산업과 그 특징,” 「경제연구」, 1998년 2호.
- 리학주(1992), “경제동태모형화방법과 그 역할,” 「경제연구」, 1992년 제3호.
- 박순성(1995a),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경제분야 실천방안,”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 「민족발전공동계획」」, 세미나시리즈 95-02.
- 박순성(1995b), “국가의 역할 부문에 대한 토론,” 한겨레신문사,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
- 박순성(1997a), “북한의 경제학 체계 개관,”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동아연구」, 제33집.
- 박순성(1997b), “남북한 경제학의 비교 연구,”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동아연구」, 제34집.
- 박영근·김철제·리해원·김하룡(1992), 「주체의 경제관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박영은(1999), “독일통일과 학술정책,” 한국사회학회 편, 「민족통일과 사회통합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미래」, 사회문화연구소.
- 방기중(1992),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 1930·40년대 백남운의 학문과 정치경제사상」. 서울: 역사비평사.
- 백창식(1992), “합영의 본질과 특성,” 「경제연구」, 1992년 2호.
- 서동만(1998), “1950년대 북한의 정치 갈등과 이데올로기 상황,”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서울: 역사비평사.
- 서성준(1996),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은 자주적인 대외무역관계발전을 위한 물질적담보,” 「경제연구」, 1996년 1호.
- 성낙선·이상호(1999), “한국 최초의 이론경제학자 윤행중,” 한국경제학사학회, 「경제학의 역사와 사상」 2호. 서울: 나남출판.
- 헬무트 슈타이너(1999), “독일 통일과정에서 사회과학의 역할,” 한국사회학회 편, 「민족통일과 사회통합 -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미래」, 사회문화연구소.
- 오기철(1992), “국제결제의 형식과 방법을 개선하는것은 대외신용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 「경제연구」, 1992년 4호.

- 오철진(1998), "대외무역계약에서 발생하는 저축문제와 그 해결방도," 『경제연구』 1998년 4호.
- 윤재창(1991), "경제수학적방법의 리용은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을 과학화하기 위한 중요방도," 『경제연구』, 1991년 제3호.
- 윤재창(1993), "경제조종학의 발생, 그 연구대상과 방법," 『경제연구』 1993년 3호.
- 이교덕(1995),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이기준 편저(1980), 『자료 한국경제학발달사』. 서울: 일조각.
- 이기준(1983), 『교육 한국경제학발달사』. 서울: 일조각.
- 이병천 편(1989), 『북한학계의 한국근대사논쟁 - 사회성격과 시대구분 문제』. 서울: 창작과비평사.
- 이병천·박순성(1999), "분단체제와 남북한 사회의 자기반성: 극단의 시대를 넘어서," 강원사회연구회 엮음, 『분단강원의 이해: 상황과 전망』, 한울.
- 이지순(1999), "한국 경제학의 진로,"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위기와 한국 경제학: 반성 및 과제』(심포지움 논문집).
- 이현재(1981), "경제학의 발전과정과 이론체제," 박재윤 외, 『경제학연구입문』, 서울: 비봉출판사.
- 임양택(1991), 『경제학원론』, 서울: 박영사.
- 임영태 편(1985), 『식민지시대 한국사회와 운동』. 광주: 샐계절.
- 장상영(1991), "대외무역에서 신용," 『경제연구』 1991년 4호.
- 정성기(1998), "세기말 한국의 '(정치)경제원론'과 문화혁신의 길 - 국립 서울대 경제학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11호.
- 조강일(1994), "무역제일주의방침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양양을 일으키게 하는 혁명적방침," 『경제연구』 1994년 2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 &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경제사전 1 &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조순·정운찬(1992), 「경제학원론」, 서울: 법문사.
- 주락보(1991), “련합기업소관리운영의 전자계산기화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1991년 4호.
- 중앙일보사(1997), 「한국을 움직이는 인물들」(상, 하).
- 채일출(1999), “보세가공무역의 본질과 특징,” 「경제연구」 1999년 2호.
- 채재득(1996), “관광업과 그 경제적특성,” 「경제연구」 1996년 2호.
- 최문수(1998), “무역편차금조성과 그 처리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1998년 3호.
- 최영옥(1997), “현시기 우리 당이 제시한 무역정책과 그 정당성,” 「경제연구」 1997년 2호.
- 최영옥(1999),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대외상품교류의 조건에 대한 사상,” 「경제연구」 1999년 1호.
- 최영철(1998), “라진-선봉지구를 국제금융거래의 중심지로 꾸리는것은 자유경제무역지대개발의 중요고리,” 「경제연구」 1998년 1호.
- 최원철(1993), “합영, 합작을 잘하는것은 대외경제관계발전의 중요요구,” 「경제연구」 1993년 4호.
- 태광용(1994), “경제수학적방법의 리용은 생산력배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1994년 제2호.
-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각호).
- 통일부(1998), 「MTI 품목분류에 따른 남북교역 통계자료(1989~1997)」.
- 한국경제학회(1963), 「경제학연구」 제11집.
- 한국경제학회(1964), 「경제학연구」 제12집.
- 한국경제학회(1990-1999), 「경제학연구」 제38집 1호~제47집 4호.
- 한국경제학회(1991), 「한국경제학회 약사 1953-1989」.
- 한국경제학회(1995), 「한국경제학회 회원록 1995」.
- 한국경제학회(1996-1999), 「경제학문헌연보」, 제1집 - 제4집.
- 한득보(1992),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 2 : 사회주의경제의 기본분야들에서 작용하는 경제 법칙과 범주」,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한철(1991), “경제과정의 특성과 수학적방법,” 「경제연구」 1991년 제4호.

- 홍기현(1995), "미국의 경제학 도입과 발전," 한국경제사학회, 『경제사학』 19호.
- Bidet, J.(1990), *Théorie de la modernité suivi de Marx et le marché*, PUF.
- Choi, Ho-Chin(1956), "Development of Teaching and Research in Economics and Commerce since Korean Liberation,"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4권.
- Schumpeter, J. A.(1954),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